폭우로 가뭄은 해갈됐지만…

광복절 연휴 기간 제주지역 100㎜ 넘는 많은 비
토양수분 관측지점 27곳 모두 '다습' 상태 확인
당근 파종 농가들 걱정 덜어… 일부는 침수 우려

광복절 연휴 동안 제주에 많은 비가 내리며 가뭄이 해갈됐다. 다만 동부지역에 폭우가 내리면서 일부 농민들 사이에서 침수 피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8일 제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15일부터 17일 오전 7시까지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성산수산 374.0㎜, 우도 240.5㎜, 제주가시리 235.5㎜, 구좌 213.5㎜, 한남 203.0㎜, 송당 166.0㎜, 서귀포 111.5㎜ 등이다.

또 한라산 주요 지점 누적 강수량은 한라산남벽 374.0㎜, 진달래밭 371.5㎜, 윗세오름 266.0㎜, 성판악 233.0㎜, 영실 215.0㎜, 삼각봉 165.5㎜, 사제비 159.5㎜ 등이다.

이처럼 제주 전역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골칫거리였던 가뭄 문제는 해소됐다.

제주디지털영농(제주DA)에 따르면 이날 현재 도내 토양수분 관측지점 27곳 모두가 '다습' 상태로 확인됐다. 연휴 직전인 지난 14일 기준 매우 부족 7곳, 부족 16곳, 조금 부족 2곳, 다습 2곳인 것과 대비된다.

제주도가 구성한 '농작물 가뭄대책 TF팀'이 가동한 가뭄 대응체계 1단계도 해제됐다.

지하수의 대체 수자원으로 쓰이는 저수지의 수량은 아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용수종합정보시스템을 보면 도내 저수지 10개소의 평균 저수율은 41.4%로, 전일(40.8%)보다 상승했으나 평년 58.7%에 크게 못 미친다.

간만의 비 소식에 대부분 농가들은 걱정을 덜었으나, 동부지역 등에서는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좌읍농민회에 따르면 현재 구좌읍에서 파종을 마친 일부 당근 경작지에선 연휴 동안 내린 비로 당근 싹이 발아하고 있다. 하지만 폭우로 인해 아예 밭이 잠겨버린 일부 농가들은 되레 싹이 썩어버릴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김우람 구좌읍농민회 사무국장은 "일부 당근밭에서는 밭이 물을 흡수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비가 와서 물이 계속 차 있는 상황으로, 물이 빠지지 않으면 싹이 시들게 된다"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서 걱정이었는데, 날씨 예측이 매년 어려워지고 있다"고 말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해양체험 나선 관광객들 18일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해안에서 고내해양체험에 나선 관광객들이 바다에 들어가고 있다. 강희만기자

성범죄 혐의 제주 경찰관 실종 사건 허위보고 의혹

경찰관이 실종 사건을 허위로 보고한 뒤 종결처리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경찰청은 서부경찰서 소속 30대 A경장을 수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경찰로 신고가 접수된 3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처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사건을 맡은 A경장은 "실종자와 연락이 닿아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지난 7월 경찰에 또 다시 실종 신고를 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경찰 조사에서 최초 신고 이후 B씨의 생활 반응은 확인되지 않았다.

A경장은 지난달 자신이 근무하는 경찰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으며, 현재 직위해제된 상태다. 양유리기자

제주 사설 항로표지 105기 관리실태 점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10월까지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제주해양수산관리단은 이달 2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주지역에 설치된 사설 항로표지 관리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설 항로표지는 해양수산부가 아닌 기관·사업자가 자체 업무에 사용하기 위해 해수부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항행보조시설로, 등대나 등부표 등이 포함된다. 주로 해상공사구역과 해양풍력발전단지 표시, 해양자료 수집 등을 위해 설치된다. 제주에는 28개 기관·사업체가 모두 105기의 사설 항로표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번 하반기 점검에서는 상반기 지적사항 조치여부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사설항로표지 기능유지와 허가 위치 이탈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또 소유자와 관리자의 사설항로표지 운영 중 발생하는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안전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감귤 비닐하우스에 불… 인명피해는 없어

서귀포시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나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

18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54분쯤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불길과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출동한 소방은 오후 5시 22분쯤 불을 완전히 껐다.

이 화재로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으나 비닐하우스와 내부 농자재가 전소됐고, 감귤나무 10그루 등이 불에 탔다. 양유리기자

정치권 로비 의혹 아파트 '압수수색'

제주경찰청, 18일 A아파트 분양사무실 대상 진행
아파트 건설 시행사 대표 등 로비 의혹 수사 착수

정치권 로비와 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제주의 한 브랜드 아파트를 대상으로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18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 소재 A아파트 분양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아파트 시행사 대표 B씨 등을 대상으로 불거진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찰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장을 팀장으로, 9명으로 구성된 A아파트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앞서 A아파트 피해자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B씨와 오영훈 전 제주도지사의 전 정무비서관 C씨, 전 비서 D씨 등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제주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을 통해 ▷법인자금으로 정치권 관계자에 향응을 제공했는지 ▷회사 자금을 목적과 달리 사용하거나 업무상 위배되는 방식으로 집행했는지 여부에 관해 수사를 촉구했다.

또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에 대해서도 알선수뢰, 시행사 대표 B씨에 대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결과에 따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등을 병합 검토해 달라고도 요청했다.

한편 B씨는 2021년부터 2023년 사이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 20여 명으로부터 20억원 상당을 가로채고 유사수신한 혐의로 송치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수의계약 개혁 환영… 사각지대 보완을"

제주참여환경연대 성명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정부의 수의계약 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18일 성명을 내어 "수의계약 개혁의 첫걸음을 환영하며 실효성 담보를 위한 사각지대 보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내놓은 '지방계약·공금관리 제도 개선 대책'에는 지방정부의 1인 견적 수의계약에 처음으로 횟수·금액 한도를 설정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이 거래처 계좌정보를 임의로 변경해 공금을 빼돌리지 못하도록 시스템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들은 "이번 대책은 그간 지자체 현장에 만연했던 특정업체 몰아주기와 편법 수의계약 근절을 향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조치"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들은 "이번 대책만으로는 더욱 지능화되는 편법 수의계약 구조와 감시망의 사각지대를 막아내기에 명백한 한계가 존재한다"며 이 제도가 구색 맞추기식 대책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 우수조달물품 등 특례 제도의 사각지대 해소, 위장 약자기업 차단을 위한 인공지능(AI) 기반 인적관계 추적, 예외조항의 엄격한 통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에 대해 추가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박소정기자

국립종자원 인증'무병묘'생산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장원농장

< 무병묘 >
2025년 도내 최초! 무병묘 총 3만주 농가 보급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묘목
2026년 무병묘 예약 받습니다.
정부지원금 최대 1,500원 지원
인증서가 있는 것만 무병인증묘입니다.

< 도내 / 국내육성품종 >
도내육성: 우리향 / 달코미 / 레드스타 / 맛나봉
국내육성: 미래향 / 사라향 / 하례조생 등등
도내 육성 품종은 제주도에서만 재배 가능합니다.
위 품종들은 통상실시 완료된 업체에서만 판매 가능합니다.

2026년 예약 중 보조사업 가능

< 포트묘 >
도내 최대 <포트묘> 생산
천혜향 / 레드향 / 한라봉 / 궁천 / 흥진 / 금귤
유라조생 / 하귤 / 팔삭 / 자몽 / 레몬 외 다수 품종

종자업등록번호 제18-제주-2022-20-02
010-4450-4316
제주시 조천읍 북선로100-29 / 조천읍 선흘리 3083, 2995-3
(사)한국과수종묘협회 우수업체, 무병묘 인증업체, 통상실시 완료업체
농업회사법인주식회사 푸른지게 장원농장

써니트묘목분양
★ 만감류 - 써니트 - 한라봉 2년 - 카라 2년 - 달콤, 미래향, 레드스타, 우리향, 맛나봉

'써니트'묘목 불법 유통 금지 안내
■ '써니트'(품종보호 제6039호)는 「한라종묘」에서 품종보호권자 현성익(서귀포시 상효동)으로부터 2041년까지 전용실시권을 받은 품종입니다.
■ 이에 따라, 타 업체에서는 묘목을 생산·판매 할 수 없고, 농가에서도 써니트 접순을 불법 채취해서 자가묘목, 고접, 접순 나눔 행위는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한 종자업체 또는 농가에서는 저희 「한라종묘」로 연락을 주시면, 협의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후, 불법 유통이 확인될 때에는 고발당할 수 있습니다.
■ 다이마사키, 레드한라봉, 홍한라봉, 붉은한라봉 등은 (품종명이 아님) 생판신고, 안된 품종이며, 후에 써니트로 밝혀지면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 유통한 묘목으로 생산된 과일은 써니트란 이름으로 유통을 못합니다. (적발시 농가나 유통업자나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유통 조치 현황 · 농가 : 42 농가 · 업체 : 3개 업체
한 라 종 묘
종자업 등록번호 : 제18-서귀포-2005-20-01호
농장주소 :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1000-3, 연락처 : 010-3696-2057

삼육두유
우리가족 건강음료, 삼육두유
설탕을 넣지 않고 고소하고 부드러운 콩 그대로의 맛을 살린 절대 모방할수 없는 맛

삼육식품 www.sahmyook.co.kr
제주도총판 대표 윤 봉실
064)757-1416